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내년도 국가 예산 221.4조 원
- 종합주가지수 1,200포인트 돌파

경영 노트

- 미국 기업들의 물류체인 재구축 활발

사회 트렌드

- 데이트메이트(Datamate)
- 온라인 연애(Love Online)

저널 브리프

- 美 금융 불안 가시화와 한국 경제

洗心錄

- 나라를 망친 7가지 죄

□ 내년도 국가 예산 221.4조 원

- 2006년 국가예산 규모는 2005년보다 6.5% 증가한 221.4조 원으로 편성
 - 2006년 예산 규모는 2006년 경제성장률 5%, 민간소비 4.4% 성장, 근로자 명목임금 7.2% 인상을 전제로 하였음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국가안전 확보 중심으로 예산 편성
 - 연구개발에 11.4조 원(15% 증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54.7조 원(10.8% 증가), 국방 분야에 22.9조원(9.8% 증가)등이 배분될 예정임

- 2006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 구조조정과 채납액 징수 대책의 병행이 필요함
 - 적자재정 보전을 위해 9조 원 규모의 국채발행과 각종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반면 2005년 상반기 채납액만 약 12조 원에 달하고, 군인·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1조 7천억 원, 공무원 인건비 1조 5천억 원 등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세출 부문에서 일부 방만한 운용이 지적되고 있음

□ 종합주가지수 1,200 포인트 돌파

- 2006년 9월 26일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200 포인트를 돌파하였으며, 9월 27일 현재 2004년 말 대비 35% 상승
 - 저금리 상태 유지와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자금 흐름이 빠르게 주식시장으로 이동
 - 순수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지난 3월 10조 원을 돌파한 이후 9월 26일 현재 16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법인과 개인의 단기자금이 주로 운용되는 MMF는 8월 중순 이후 약 8조 원 감소

- 주가지수의 단기 급등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의 투자패턴이 간접투자로 바뀌면서 중장기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핵 리스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한국 증시의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기업들의 물류체인 재구축 활발

- (배경) 미국은 최근 갑작스러운 물동량 증가로 항만 적체가 가장 심하고, 적기 운송이 안 되는 등 물류 관리가 힘든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 서부 주요 항만들은 적정 소화량을 넘는 화물이 발생하면서 하역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많은 화물선들이 다른 항구로 선회하여 비용 부담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적기 배달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철도 운송 또한 물동량 증가로 운송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 (물류체인 재구축 동향) 물류 적체와 함께 최대 매출 시즌이 임박함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물류체인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적기 운송을 위한 대체항 물색을 위해 전문 운송 컨설팅회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 대형 유통업체들은 항만 적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 및 기타 서부지역 항만으로 제품 반입 경로를 변경하는 등 물류체인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 또한 서부 주요 적체 항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서부 거점 지역으로 물류 집하지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대규모 집하 시설을 설립하여 운송 능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있음

- (시사점)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체인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
 - 기업의 물류체인의 재구축은 적시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단기적인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체인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특히 물류업체들은 RFID 등 신기술의 접목 및 육해공 일관 수송체제 구축 등을 통해 유연하고 효과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객사의 물류체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통해 전문 물류업체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데이트메이트(Datamate)

- 데이트메이트란 이성과의 연애를 뜻하는 데이트(date)와 친구를 뜻하는 메이트(mate)의 합성어로서, 친구보다는 가깝지만 애인보다는 먼 이성임
 - 요즘 신세대들은 애인 대신 데이트메이트를 사귀는 게 유행이라 함
 - 데이트메이트 사귀기의 4대 원칙은 ▲ 사랑하지 말 것 ▲ 스킨십은 키스까지만 할 것 ▲ 감정이 식으면 깔끔히 헤어질 것 ▲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것 등임
- 이들의 데이트 방식은 언뜻 보면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지만, 심리는 전통적인 연인과 완전히 다름
 - ‘우정 이상, 사랑 이하’ 감정 유지가 관건이며, 한쪽이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면 ‘쿨(cool)하게’ 접수해야 함. 질투는 기피 대상 1위임
- ‘커플의 풍족함’과 ‘싱글의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데이트메이트는 ‘무거운’ 사랑보다는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신세대 교제의 한 유형임
 - ‘싱글은 편하지만 외롭다’, ‘연애는 좋지만 구속은 싫다’는 신세대 사고 방식을 반영한 트렌드임

□ 온라인 연애 혁명(Love Online)

-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새로운 중매쟁이로 부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이성교제 시장은 인기 있고 수익성도 높아 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
 - 2003년 8월 한 달 동안 4,000만 명의 미국인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방문했음. 2003년 상반기 동안 개인 광고 사이트와 데이트 사이트에 2억 1,430만 달러를 지출
 -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의 적합한 상대를 찾아주는 사이트(eHarmony.com), 동창 모임 사이트(Classmate.com), 유대인 혈통 사이트(Jdate.com), 용모가 수려한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는 베니티데이트(Vanitydate.com) 등이 있음
- 온라인 데이트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귀는 과정상의 혁명임
 - 그 과정은 냉혹할 정도로 사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온라인에 익숙한 신세대들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함

□ 美 금융 불안 가시화와 한국 경제*

- (미국 금융위기 가시화의 악영향) 미국 금융 불안이 카트리나, 리타의 영향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금융 불안 가시화 가능성 증대) 미국경제는 쌍둥이 적자를 메워줄 수 있는 해외자금유입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으나,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해외자금유입량이 급감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환율 가치 급락 등으로 금융 불안이 가시화될 수 있음
 - (일본 경기 재둔화설 대두) 현재 일본은 소비 회복에 의한 경기 회복기에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미해결, 엔고에 의한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재둔화 가능성이 큼
 - 미국 금융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일본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출 부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기 감속으로 예상됨
 - 또 만약 일본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 사태에 몰리게 되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등 미국 금융 불안의 또 다른 형태의 전염효과가 나타날 것임
 -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금융 불안은 줄어든 상태이나 금융 시스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의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 (유로는 반사이익) 미국 금융 불안이 가시화되면 유로지역으로는 경기 여건과 상관없이 외국투자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임
- (한국, 대응책 마련 시급) 현재 정부 판단은 낙관적이나 일본 금융기관 등의 자금회수 가능성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미국 금융 불안이 가시화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함
 - (국제 투기자금의 자금 회수) 최근 경쟁 심화로 헤지펀드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어, 미국 금융 불안 등으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면 국제투기자금 회수 압력이 급증할 것임
 - (대응책 시급)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한국은 내수와 외수의 균형 유지, 수출시장 다변화, 품질 및 디자인 등 가격 이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10.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나라를 망친 7가지 죄

어느 나라에서건 정치와 정치가는 늘 골칫거리인 모양이다. 그래서 풍자의 가장 빈번한 소재가 된다. 그렇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프랑스 정치 지도자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1841~1929)에게 신문기자가 물었다. “지금까지 본 정치가 중에 누가 가장 최악입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최악의 정치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기자가 의아해 하며 반문했다.

그러자 클레망소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 사람이 최악이다 하는 순간에 꼭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나더군요.”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로 추앙받는 간디(Gandhi, 1869~1948)도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일곱 가지 악으로 정치의 타락을 으뜸으로 꼽았다. 1930년대 영국 식민 치하 인도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간디가 설파한 망국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죄악을 여기 소개한다.

첫째, 진실이 빠진 정치
둘째, 도덕이 빠진 상업
셋째, 노력이 빠진 부(富)
넷째, 인격이 빠진 교육
다섯째, 인간이 빠진 과학
여섯째, 양심이 없는 쾌락
일곱째, 희생이 빠진 기도

최고의 두뇌는 정부에 없다.
만약 있다면 경제계에서 데려갈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1911~2001) : 美 제40대 대통령